



관내 동향

□ 사천에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연구동 준공

-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 사천에 항공기 복합재 부품 개발과 수출에 필요한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·평가 인증센터가 9월 29일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서 준공식을 가짐
- 경남도, 사천시,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는 지역 신산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37억원(국비 80억, 경상남도 78.5억원, 사천시 78.5억원)을 투입, 시험평가 연구동 건립과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
- 연면적 2675m² 지하 1층, 지상 3층 규모로 시험평가장비와 설계·해석 S/W 등 31종이 구축된 연구동은 항공 중소기업의 복합재 및 부품 직수출과 기술개발 기반으로 활용되며, 사천 지역의 항공 복합재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유치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
- 송도근 시장은 “항공기 복합재 시험평가 연구동 및 시험 평가장비 구축으로 중소항공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어려움에 처한 항공 제조업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”이라고 밝힘

□ 사천시, 내년 사천에어쇼 재단 설립 추진

- 사천시는 지난 9월 30일 사천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에어쇼 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
-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경남연구원은 경제성 분석결과 재단설립의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
- 현재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분담해 추진함에 따라 효율성과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우주항공 산업정책을 총괄할 통합적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밝힘

- 사천에어쇼 재단 설립시 생산유발효과는 총 1104억원,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525억원, 고용 유발효과는 연평균 40.8명 수준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 예상
- 사천에어쇼의 조직 및 인력은 1국 4개 팀 15명으로 예상하며, 연간 사업비는 20억 2000만원, 재단 설립 초기 출연금은 약 7억 5000만원으로 산정
- 향후 추진계획은 최종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,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립계획 수립 후 경남도 협의, 조례 제정 등 2022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

□ 한국항공우주산업, 고속상륙정 가상훈련체계사업 수주

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은 9월 30일 방위사업청과 ‘고속상륙정 시뮬레이터 체계 개발사업’ 계약을 체결
- 계약금액은 총 293억 5000만원으로 모의조종실, 지원장비, 운영요원 교육훈련 등이 포함된 시뮬레이터 1식을 2024년까지 납품 예정
- 고속상륙정은 독도함과 같은 대형 수송함에 탑재돼 병력, 물자, 장비 수송 등 상륙작전과 연안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으로 최대 시속 70km 이상 고속항해가 가능한 해상 전력
- KAI는 이번 사업 참여를 위해 항공분야 시뮬레이션 기술을 접목한 함정용 운동역학 모델을 자체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 외에도 SW, 유무인 복합체계(MUM-T), 미래형 이동체(UAM) 등의 분야를 집중 개발 및 투자



도내 동향

□ 경남도, 항공 MRO 현장에 즉시 투입할 전문인력 양성

- 경남도는 9월 29일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서 항공정비사 인력 양성 업무협약(MOU)을 체결
- 항공정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이번 업무협약은 경남도, 사천시, 경남테크노파크, 한국항공서비스(주)와 한국폴리텍대학(항공캠퍼스), 경남도립거창대학, 경남도립남해대학 등 항공정비학과가 있는 도내 6개 대학이 참여

- 이번 협약으로 KAEMS는 전문 강사진과 시설·장비를 교육생에게 제공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과 실무 교육을 맡음
-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등 도내 대학에서는 교육생 모집과 함께 이론·실습교육에 참여하고 교육과정 학점 인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, 경남도, 사천시, 경남테크노파크는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등 운영에 관한 지원을 맡기로 함
- 경남도는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힘을 합쳐 항공MRO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수준의 전문인력을 올해 하반기 25명, 내년부터는 50명씩 양성하여 늘어나고 있는 산업현장 수요에 적기 대응할 계획
-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“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항공MRO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”을 강조하며, “앞으로도 지역의 항공MRO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힘
- 한편 경남도는 서부경남을 항공MRO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사천 항공MRO 산업단지 조성, MRO 기업의 정비 능력 확대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정비조직 인증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



국내 동향

□ 서울아덱스 2021, 서울공항서 개최

-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및 방위사업 전시회인 ‘서울아덱스 2021’이 10월 19일(화)부터 23일(토)까지 5일간 개최
- 2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서울아덱스는 총 28개국 440개사에서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실내외 전시, G2B, B2B, 에어쇼 공연, 투자콘서트, 산업 세미나 및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로 운영
- ‘서울아덱스 2021’의 명예 대회장은 김부겸 국무총리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, 한국방위산업진흥회, KOTRA가 주최하며 국방부, 산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육·공군본부, 해병대 등이 후원

- 입장을 원하는 관람객은 온라인 예매를 통한 사전등록을 반드시 해야 참가할 수 있으며, 또한 방문일 기준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또는 72시간 이내 PCR 음성자만이 참여 가능

□ 태안군 - 한서대와 드론 자동비행시스템 ‘드론길’ 구축

- 최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과 태안 UV랜드 조성 등 ‘K-드론’의 중심지로 태어나고 있는 태안군이 한서대학교와 손을 잡고 ‘드론길’ 시범 구축을 통한 해양쓰레기 실태조사에 착수
- 이번 드론길 구축 범위는 태안반도 559km에 달하는 해안선과 28개 해수욕장, 42개 항·포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지역들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해양쓰레기 수거가 어려움
- 태안군과 한서대 무인항공기과 이재용 교수팀은 드론의 해안가 탐색을 위한 자동 비행경로 시스템을 구축, 이달 초부터 초고화질(UHD)영상 채증 및 실시간 드론 모니터링 실시
- 군은 해양쓰레기 탐색 외에도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과 지형 실태조사, 해안가 식생연구 등에도 활용할 계획



드론길을 활용한 드론 비행 및 해양쓰레기 탐색

□ 인천국제공항, ATW에서 ‘올해의 공항상’ 수상

- 인천국제공항이 제47회 ATW 항공사 시상식(Air Transport World Airline Awards)에서 올해의 공항상 수상
- ATW는 미국에 기반한 항공산업 전문 잡지로, 지난 1974년부터 글로벌 심사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매년 항공산업 분야 최고기업을 선정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
-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수하물 스마트 방역시스템 개발, 비대면 발열체크 로봇 등 선제적인 방역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



해외 동향

□ IATA, “항공사들, 2023년 흑자 전환”

- 10월 4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항공운송협회(IATA) 연차총회에 각국 항공사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항공 전망에 대하여 토의
- IATA는 전 세계 항공운송의 80% 이상을 담당하는 약 300개 항공사들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는 국제적 연합회
- IATA는 항공사들이 지난해와 올해, 그리고 내년에도 적자를 이어가겠지만 적자폭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낙관
- 낙관의 이유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제약사 머크 등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, 세계 각국의 국경 개방 등을 들고 있으며 IATA 한 관계자는 “위기의 정점을 지났다”면서 “아직 심각한 문제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회복 여정이 가시화하고 있다”고 밝힘

□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엑스, 민간인 지구 순회 여행 최초 성공

-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가 9월 18일 민간인 4명을 태운 우주선 ‘크루드래곤’이 3일간 585km 지구 순회 여행을 최초로 성공
-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인솔하는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는 지난해 5월과 11월, 올해 4월 잇달아 우주비행사를 국제 우주 스테이션에 보내는 등 최근 유인 비행을 차례로 성공하면서 우주 사업 분야의 독보적 우위를 점함
- 한 매체에 따르면 “스페이스엑스는 2022년 이후, 연 6회의 지구 주회 궤도 우주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달을 목표로 하고 화성 탐사까지 계획”한다고 밝힘

작성일	2021. 10. 13.(수)	보고일	2021. 10. 15.(금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정우현(055-831-3470)